

억만 분이 깨달으셨다 하더라도 한 도량의 한 부처이니라!

21면에서 계속

그리고 그 밑으로 밑으로 내내 성맥(禪脈)이 끊어지지 않고 끝 간 데 없이 이어지도록 지키고 나갈 수 있게끔 법신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들이 “학술적으로 하지 않고, 경전으로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탄압을 하느냐?”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했죠. “풀포기 하나도 생명이 있고 이진전심으로 전달하고, 같이 공생(共生)을 하고 공식(共食)하고 있는데 무엇이 부처님 법이고 무엇이 부처님 법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가톨릭교인이고 기독교인이고 다 와서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디 호텔을 정해서 설법을 한다 하고 기별을 하니 심지어는 가톨릭교 신부나 목사도 모입니다. 어떤 질문을 해도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그냥 서슴지 않고 대답을 해 줄 수 있는냐고, 나중에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면서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남에게 해롭게 대답도 하지 않고 어떤 거 하나 나쁘다는 것도 없이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냐고 그러는 겁니다. 그랬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부처님 법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잘났다고 해 봐야 이 고깃덩어리가 얼마나 잘났으며, 이 고깃덩어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러나 부처님의 골수는, 여러분의 누진(漏盡)으로서 오신통(五神通)을, 법바퀴를 벗어나야 바로 불바퀴를 굴릴 수 있으며, 불바퀴를 벗어나야 바로 이 마음이 천백억화신으로, 분신으로 화해서 바깥으로 전 우주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이걸로 쓸 거는 이걸로 쓰고, 저걸로 쓸 거는 저걸로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지구만 해도 이 안의 세계를 위하여 지구 바깥으로 세 개의 소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냐. 지구 바깥에 법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계라는 그 자체는 무엇이나. 우리네들의 마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네들 털구멍을 통해서 나고 들고 하는 것처럼, 지구도 살아 있는 생명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물질, 후성이기 때문에 많은 물질들이 입자를 통해서 분자가 돼 가지고는 세 가지 소임을 합니다. 아주 질서정연하게 단계 단계 단계... 그래서 지구 바깥으로 그 단계가 되어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소임을 맡은 단계입니다. 안으로 들이고 바깥으로 내는 소임, 안으로 바깥으로 전부 통신하는 소임, 그리고 책정을 하는 소임, 세 가지를 그렇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안으로 들이고 밖으로 내는 것만 보더라도 더 넓게 보면 이 지구 안으로 모두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발을 붙이고 다니는

것도, 남극 북극에서 그 소임을 하면서 들이고 내기 때문입니다. 남극이 똥 누는 데라면 북극은 먹어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나쁜 건 내놓고 좋은 건 들여놓듯이, 지금 인간혹성 자체가 그렇게 살듯 지구도 그러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네들 마음 자체의 보이지 않는 입자, 즉 말하자면 화신들이, 내 몸뚱이도 보호하러니까 그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아니 인간에겐 5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다섯 단계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끌어잡아 당기는 것과 끌려들어 가는 것의 양면을 다 책정을 잘하는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세균성이 들어와도 우리가 들여놓을 건 들이고 내놓을 건 내놔야만 하는 작업도 있죠. 이 허공에도 지금 세균성이 그냥 육시글육시글하니깐요, 안에서 그렇게지만 또 유전성으로 온다가 영계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인연에 따라서 들입니다

음에 주장자가 없는데 내 주장자를 어떻게 너에게 한데 합쳐 줄 수 있는냐 이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 네 주장자가 없다면 빈집이 돼서 털구멍을 통해서 눈구멍을 통해서 콧구멍을 통해서 들락거리면서 그저 캄패니 뭐니, 예를 들어서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데서 전부 그냥 드나들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만 드나드는 게 아니라 짐승들의 그 의식도 드나들기 때문에 집이 망가져서 나중에 자기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못 할 거며, 또 집이 먼저 망가지면 내가 나를 찾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집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몸으로 고행을 하지 말고 정신 수행을 하라 하신 거죠. “정신 수행으로서 진짜로 들고 나는 데에 누가 하는가. 내가 하는 것을 알라. 몸은 사대가 돼서 흩어지고 말지만 정신, 너의 진짜 참마음은 끝 간 데 없이 바로 너를 살리고 너의 중생을 살리고 수많은 외부의 중생들을 다 건질 수 있다는 걸

알라.” 하셨습니다. 그 말은 ‘위로는 억만 분이 깨달으셨다 하더라도 한 도량의 한 부처이니라. 그러니 평발 한발로 디뎠느니라.’ 이거야. 그러니 얼마나 거룩한 말씀이냐는 거죠. 그 말을 그렇게까지 안 하셨어도 “금강경,이나 ‘화엄경,이나 ‘반야심경,을 본다면 거기에 그냥 탁탁 들어가 박혀 있어, 아주 글자 아닌 글자를 아주 거기에다 똑똑 박아 넣었다고.

오늘은 이렇게 설법하는 날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내가 그렇게 잘하니까 나를 믿고 따르라 이런 게 아니고, 본래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진리가, 뜻이, 법이, 중용이 바로 그러하다 이런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서로 토론을 하는 날인데 나 혼자만 지껄여서, 지껄인다고 그래야 돼요. 하하하... 안됐지만 어떡합니까?

랍달 아니야. 허허허... 보통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스님 안 돼. 스님 되는 것도 보통이 아니야. 부모 형제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속단해 버리고 이 무명초, 천차만별로 어지러운 모든 걸 깎아 버리고, ‘나는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은 도리를 알겠다.’ 고 다짐하고 들어오는 거, 이게 보통 아니야.

그런데 공부를 한다니까 말인데, 어떤 분야든지, 만약에 의학을 해서 아픈 사람을 건진다 하더라도 이 도리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물질 또는 학술로 배워도 마음으로 50%의 보이지 않는 데서 나오는 걸 체험해서 터득하지 못한다면 자기가 그걸 커버하고 나갈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의당히 이거는 배우고 나가야 된다는 거야,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질문자(여) 더 솔직하게 스님한테 말씀 드리면, 세상에서 말하는 재산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그런 것은 하나도 뭐, 욕심이 있다가 그런 생각이 없는데 단 하나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제가 시집을 안 가고 그냥 스님이 되어서 살 수 있을까, 그것만은 끝까지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지금은 생각해 보는 중이거든요, 스님.

큰스님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는 중이라면 진짜 생각을 해서 단호히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마음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 그런데 나는 시간 뭐,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아. 우리가 시집을 간다 장가를 든다고 하는데, 그런 일에 정신을 빼앗기는 사람이려면 공부도 못 할 거 괜히 스님이 돼서 뭘 하느냐. 가정이라도 잘 지켜야지. 이 공부든 모든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앉아서 이 세상을 다 주무질할 수 있는 거야. 승려가 안 돼도 됩니다.

그러나 이 스님네들은 여기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한마음이 돼 줘. 한마음이 돼 준 단 말이야. 단호히 결정을 내렸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라 전체를 그냥 다 끌어들이는 한마음이 돼. 한 기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스님이 되려면 스님이 돼서 이 세계를 누비면서 이 마음법을 전파해도 좋지. 우리 생명의 근본과, 말하고 체험하고 이러한 게 불교니까, 그러니까 풀 한 포기라도 제도하려면 스님이 되고, 그런데 살림하는 사람들은 풀 한 포기까지 생각을 안 해. 또 죽은 사람들까지도 생각을 안 하고,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아, 살기 바쁘니까.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뿐이야.

(다음 호에 계속)

※ 위 문본은 91년 5월 5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립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몸은 사대가 돼서 흩어지고 말지만

이 정신, 너의 진짜 참마음은 끝 간 데 없이

바로 너를 살리고 너의 중생을 살리고

수많은 외부의 중생들을 다 건질 수 있다는 걸 알라.

침입을 하게 방치가 된다면 우리가 도저히 살 수가 없죠. 임신을 했어도 임신한 그 자체에 자꾸 집어넣기 때문에 그 애가 이 세상에 서 대통령감인데도 소통령도 못 하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거죠. 얼른 쉽게 말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미래세계 정신세계의 노예로서 산다 이겁니다. 우린 맘대로 살 수가 없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레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안으로도 노예가 되지 말고 바깥으로도 노예가 되지 말라. 네 정신 내가 가지고 있고, 네 주인공 내가 가지고 있으니...” 그 소린 뭐냐 하면, 네 주장자가 있다면 이렇게 끌리고 저렇게 끌리고 그러진 않을 거다 이거야. 네 집이 비지 않았다면 이것도 들어오고 저것도 들어오고 들락날락하지 않을 거다 이거야. 네 집이 비었기 때문에 수없는 게 들락거리면서 네 집을 망가뜨리느니라, 이렇거든.

그러니 네 기둥이 없는데 내 기둥을, 네 기둥이 없는데 내 주장자를 줄 수가 있는냐 이거야, 네 집이 비었는데, 네 집이 비지 않고 주인이 있다면 내 주인을 너를 줄 것이로되, 주서 한마음이 돼서 하나가 돼 가지고 일을 크게 할 텐데, 네가 집이 비어 가지고 네 마

알라.’ 하셨습니다. 그 말은 ‘위로는 억만 분이 깨달으셨다 하더라도 한 도량의 한 부처이니라. 그러니 평발 한발로 디뎠느니라.’ 이거야. 그러니 얼마나 거룩한 말씀이냐는 거죠. 그 말을 그렇게까지 안 하셨어도 “금강경,이나 ‘화엄경,이나 ‘반야심경,을 본다면 거기에 그냥 탁탁 들어가 박혀 있어, 아주 글자 아닌 글자를 아주 거기에다 똑똑 박아 넣었다고.

옛것처럼 어느 스님이 “왜 ‘반야심경,을 그렇게 풀이해서 미국에 가서까지 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영어로다가 써서 우리 발음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조곤조곤 차근차근 그걸 읽어 내려가는데, “참 잘 읽는다.” 내가 그랬다고요. 그걸 어떻게 따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말 영어죠. 하긴래. 그랬는데 아, 그것도 흥인 거예요, 글썽.

그래서 그 스님더러 그랬어요. “부처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다고 경전을 보고 지금 그대로 해야 한다면... 그때 시절에 트럭이 있었겠느냐, 짐차가 있었겠느냐. 짐차라는 이름이 있었겠느냐.”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그때 만약에 지게꾼이 있었다면 “지게꾼!” 하고 불러야 그런 대답을 했는데 지

그러니 질문들을, 청년회도 그렇고 모두 질문들 하십시오.

질문자(여) 저도 사실 마음 밝히는 공부를 참 하고 싶은데 스님처럼 꼭 출가수행을 해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큰스님 음, 그거는 대답하기가 곤란하잖아, 그건 자유로 하는 건데. 하하하... 내가 느낀 거 두 가지를 얘기하겠는데 머리 깎고 입산을 한다면 모르는 사람들이 “저이는 스님이야. 그러니까 스님한테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 이러지만, 출가하지 않고 공부하는 이는 그냥 스님하고 똑같이 다 실천할 수 있어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넓게 할 수가 없으니까 머리를 깎는 거지. 보이는 사람 때문에 말이야. 안 보이는 데서는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건 자유야. 스님이 되고 안 되는 건 자유고, 공부하는 거는 스님이 됐든 안 됐든 똑같아. 이거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아니, 그 도리도 모르고 스님이 되면 스님은 돼서 뭐 해? 켄데기 스님이 돼야 소용없어, 아무런 천만 명이 된대도, 그러니까 결심하고 스님이 되는 거, 이게 보통사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군 → 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능인 로즈마리 능인 라벤더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으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능인로즈마리는 향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특히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능인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원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개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신선초 산삼 전문점 모집

산양삼 장뇌삼이 아닌 천연산삼 순수종을 전문적으로 취급하실분을 모집합니다.

수량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선착순 세분만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분은 아래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H.P 010-5633-7010

